

# 교회 - 멤버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What It Means To Be a Church- Member

저자; - A. T. 존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케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26)

이 성경 구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분 자신 앞에 교회를 나타낼 것이다. 고 하였다. 그 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 분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 교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고 교회를 사랑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할 마지막 기별을 "이 세대"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들 자신들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을 그 분이 찾을 때까지는 그 분께서 이 기별을 줄 수 있는 교회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방침 안에서 실제적인 것들로 인도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 고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 분 안에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분 자신을 주신 교회는, 실제로 그 분의 몸이고, 실제로 그 분 자신이 나타내신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는 것은, 내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적지 않고 그 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는 것보다도 더 많지 않을 것이다.

교회 일원이, 교회에 속함에 따라 정연하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하여 정연하게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것들에 다른 점이, 하나님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에 차이점이다. 불법의 신비는 교회 형식과, 교회 이름과, 교회 의견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끌어모으며, 강압한다, 이는 불법의 신비가 순서대로 디자인한 것이다, -- 이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 안에는 의가 없으므로, 의가 그것 안에 없다. 비록 그들이 독특한 교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이전과 똑 같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행한 것보다도 다른 견해와 형식들을 따를지라도,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모든 것들이 일찍이 행하던 것과 같으므로, 완전한 교회 멤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분 안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 안에 속하는 우리의 일원에 따라서, 이 교회 회원권의 총계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그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께 오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분 안에 거하게 되며 교회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백성들이 구성된다. 이는 사람을 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 자신들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 각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명부에 등록된 이유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참된 멤버인가? 내가 교회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교회 멤버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나의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그 분께 속하였고,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실제로 그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되지 않았는가?" 오직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상 교회 멤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명부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가입한 멤버들로써 교회에 대한 어떤 형식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회 형식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행하였고, 또한 얼마나 긴 기간동안 그것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결코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어쩔 수 없는 주위 상황 때문에 지상 교회 어떤 명부에도 그대 이름이 실제로 기록될 기회가 막혔을지라도, 또는 그대 이름을 교회 명부에 등록할 기회가 없을지라도, 또는 지상에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그대가 지상에서 오직 한 영혼일지라도, 여전히 그대가 그 분에게 연합하였고, 그 분 안에서 살면, 그대가 교회 멤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 멤버이고, 또 오직 이 방식이 그리스도 교회 멤버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정연하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주어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그 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어,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 그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분 자신을 주시고, 그 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분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 그 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 분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분의 마음으로, 그 분에 의하여, 그 분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준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게 내 자신을 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윗 문단을 일반적인 말로 몇마디 덧붙여 설명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다." 또는 "내가 교회에 속한다." 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미심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하였는가? 또는 세상에 속하였는가? 또는 내가 교회에 소유되고 점유되어, 교회의 것으로 포함 되어서, 내가 글자 그대로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교회에 넘겨주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넘겨주었는가?

예수께서 그 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바로 그러한 특이한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셨다. 바꿔 말하면, 바로 그러한 특이한 교회를 그 분께서 세상에 보내어 그 분의 위대한 지상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특이한 교회의 총수는 소수지만, 그 세대에 그리스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오늘날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데 있어서 인원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세상의 크기에 의한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것도 고려할 것이 없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속하였는가? 이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우리가 숙고해야 한다. 오늘날,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칠만 오천 명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 이들, 칠만 오천 명 각자가, 그 자신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교회에 속하면, -- 언젠든 이 세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후에, 기독교인들 백 이십 명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적어도 **75,000**명이다. 사도들이 오순절로부터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때보다도 오늘날, 이 세상이 더 크지 않지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멤버들이 그 시대에 숫자보다도 더욱 많다. 그렇다면, 그 작은 무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그 세대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세대에 복음을 다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모두가 참으로 교회에 속하였으면 오늘날, 이 남은 세대에, 이 인원수가 세상에 기별을 전하기가 더할 나위 없이 쉬운 것이다. 이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돈이 많이 있으나, 그 돈이 모두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 시설들과 그 재능들과 그 능력들이 교회에 속하였을 때, 풍족한 시설들과 풍족한 재능들과 풍족한 능력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일찍이 필요하였던 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항상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 돈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가 교회에 속하였는가? 만일 나의 재능들과, 나의 능력들을 세상을 위하여 세상 사업에 내 주었으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교회에 속한 것인가? 라고 자신을 숙고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볼 만하다.

우리가 이 의문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 몸이 얼마쯤에 구성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사람의 재능이 저 쪽에 있을 수 있고, 그의 능력들과 그의 자력의 열매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며, 그의 생애에서 그의 능력으로 노력한 열매들의 결과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또 사람은 여기에 있고 -- 그의 모든 것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가? -- **No**, 나의 모든 자력들과 내 생애의 모든 열매가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속하는가? 참으로 내가 교회에 속하는가? 이것이 의문점이 된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75,000** 명이 교회에 속하는가? 과연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 선생이고, 또 내가 학교를 위하여 내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자력을 학교- 학교- 선생으로써

세상 학교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 교육을 한다, 이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볼 만하다. 내가 교회에 속하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내가 공언하는 것과, 나의 자력들과, 나의 생애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능력을, 세상 일을 위하여, 또 세상의 목적들을 위하여 세상에 준다. 내가 이런식으로 행한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고 있는가?

만약 내가 의사면,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자력들과 나의 생애와 나의 노력을, 세상 방식대로 약을 사용하고, 세상 방식대로 병을 치료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속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화되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의술 치료법의 체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생애를 위하고, 또 건강과 질병에 관한 참된 철학이며 치료법이다. 나는 교회에 속하므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성화되고 정결케 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 대신에, 나에게 속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전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속한다. 내가 참으로 교회에 속하는가?

내가 교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성화 되고 정결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교회에 속한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교육의 체계이다.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오직 참된 교육이다. 내가 교회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세상 교육 계통과 함께 세상 교육과 세상 교육의 철학에 만족하고, 또 나는 나의 생애를 그것에 바친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세상 방식의 의학과 어떤 다른 전문직을 정확히 입증한다, 내가 참으로 교회에 속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업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사업이나, 농업이나, 목수에 직업일 수 있다; 나는 매일같이, 세상 상업과 세상 직업을 행하기로 작정한다. 나는 교회에 속한다고 공언한다, 그래서, 내가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세상 은행에 저축해 둔다. 나는 투기업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멤버가 되게 하신 의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세상 은행에 저축한다. 내가 속하는 교회 사업 대신에 세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편견 없는 질문이 있다. 내가 교회에 속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만일 미국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모두가 오늘부터, 앞으로, 참으로 교회에 속하면, 이 세대에, 이 기별들을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 그대와 그대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백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대가 안다. 그러면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이 문제를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교회에 속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살피서, 나의 재능을 세상 일에 종사하고, 세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세상적인 나의 의도들을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그대와 내가 그 소용돌이로부터 떠나기를 작정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에게 속한 교회 일을 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진동시키게 되고 세상이 당황하게 될 것을 그대가 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만일 미국에 있는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모두가 이것을 참으로 고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들 자신들을 교회에게 주면, 우리 학교 사업이 참으로 잘 유지되지 않겠는가? 우리 학교 사업의 상태가 잘 유지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대단한 능력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이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며, 가르침이 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만일 이 나라에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그들의 가족들을 기독교인 교육으로 향하게 되면, 그 교육이 교회 교육이 될 것이고, 또 세상이 교회에게 관심을 기울여 방문하고, 또 세상 자체가 말하기를,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부족한 이유로, 교회 교육에 필요량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다고 하면, --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대 교회가 쉽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한 교회가 될 때가 되었다, 교회가 일어나서 교육에 필요한 양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회 교육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참으로 그들 자신들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 자신들을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재능들과, 그들의 모든 의도들과, 그들의 모든 능력들을 바치면, 그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다. 이 세상 시설이 풍부하다. 지난 밤에 다니엘 형제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설교하였다. 오늘 콘레이디 형제가, 일할 수 있는 들판이 어떻게 개방되었고 어떻게 추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지금이 추수에 적합한 때임을 예언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내었다. 오, 오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치도록 하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처럼 그분의 교회에 바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가 노력한 모든 열매의 종류와 우리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자. 그때에, 오, 교회가 이전 교회와 같이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접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될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유지하는 기둥과 장소가 된다. 이 의미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언제나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과 유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세상에 널리 진리를 보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 안으로 자신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화시켜서, 그 곳에 다른 것들을 놓고,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차단하고 떠나갔으므로, 세상에 기별을 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려면,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와 같이 이방 국가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과 속박이 있을지라도, 나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흩어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 간에, 교회가 나라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나라들이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교회를 통해서다.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교회를 통하여 나라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 교회가, 진리에 기둥과 장소로 지속되고 세상에 진리를 부양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생명력이 가득 찬 진리를 보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노력들을 세상 업무와 세상 업무의 지식에 도통하기 위하여 소비하였으면, 교회 자체가 되는 나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러한 상태 안에서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없다. 내가 교회이므로 정연하게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 일을 내 일로 해야 한다. 만일 내가 농부이면, 농장 일을 교회 일처럼 한다. 만일 내가 선생이면, 교회의 대표자이며 선생이다. 만일 내가 의사면, 내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나의 직무를 교회 일처럼 행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게 속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므로,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실제로 교회에 속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교회와 관련될 것이므로, 우리가 독특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는, 오, 그때는,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그녀가 가득 채워진 진리에 의하여 아주 성화될 것이며, 그 진리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또 세상이 그 영광스러운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녀 위에서 주님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녀에게 빛이 왔으므로, 그녀가 그 말씀을 실행할 것이며, 그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고, 또 주의 영광이 그녀 위에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그대가 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바꿔 말하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언한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될 것이다.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복음에 신비를 전하면,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완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 사업이 끝나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 육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그리스도를 믿는자들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종결하는 두 장소가 있다. 한 장소는 세상, 바로 그 자체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다른 장소는 믿는 자들이 진리대로 생애 하는 것이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복음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고 끝나치게 될 것이다; 만일 여전히, 설교하는 자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복음 사업이 끝나쳐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천년을 설교할지라도, 결코 끝이 올 수 없다. 이는 복음을 세상 도처에 전파하여, 이 세상 전부를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끝을 내지 않으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각자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서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를 끝낼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육체 안에 나타나면 그 신비가 완료된 것이고 - 인침이 있게 된다 --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생애에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인치는 것이다. 이 의미는; 그런 식으로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직 이 방식만이 하나님의 신비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대가 아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 방식에 문을 활짝 열면, 오늘 공언하는 **75,000**명의 믿는 자들의 생애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가득 채워서, 우리를 그 분 자신의 소유물로 취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쉽게 진리를 전하게 되고, 이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하면: 그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가 믿는 자들 안에서 종결되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으므로, 믿음의 성장이 끝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고수할 것이고, 오직 그 분을 반사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 우리가 단행한 모든 것과 모든 말투와 음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오직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종결될 것이고, 오직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이 오기 전에,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를 그 분이 자신 앞에 나타내실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성령을 교회에게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라." 에베소서 **4:12** 이것을 잊지 말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이다." 에베소서 **4:13**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실 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창조이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을 통하여 진화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길게 연속되지 않는다. **Yes** "우리는 그 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10**)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교단에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모집된 사람들 전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를 만들게 되면, 이 세대에 복음 사업을 끝마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무조건 순종하면, 그 순종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종결됨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천사가 이천 삼백 일에 대한 주제를 말한 것이, 내가 이전에 제시한 방식과는 다르고, 또 많은 다른 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던 방식과도 다르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천 삼백일에 대한 주제를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칠십 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메시아 통치자까지 육십-구 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810년 후, 1844년**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 안에 있지만, 여기에서 천사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경청하라: 이것이 천사가 말한 것이고, 이것이 이천 삼백일에 대하여 그가 설명한 것이다. "칠십 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 **9:24**) 기별자가 어떤 성소 문제를 연구하고, 어떤 성소 문제를 선포할지라도, 그의 생애에서 죄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의 설교와 선포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의 생애 자체 안에서 죄악이 끝났음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별을 전하는 자의 생애 안에 있는 죄에 화해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설교하는 자의 생애에서 영원한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절대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별에 설교가 될 수 없다. 이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제시한 바로 그것을 빼버리고, 그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된 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형제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천 삼백일에 대한 전반을 전할 수 있고, 틀에 박힌 수법으로 성경의 모든 장과 구절들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애에서 죄가 끝나야 됴를 모르는 자는, 그들의 죄들을 끝내야 됴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죄악에 화해를 이루어야 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없게 되고, 그들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음을 그대가 안다. 그때 그러한 종류의 성소 설교와 정결케 함은, 결코 성전을 정결케 함에 이룰 수 없게 되고 또 결코 우리의 죄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수도 없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함이 진행됨과 동시에, 그곳에서 죄악들을 끝나게 하고, 그곳에서 죄에 화해를 이루고, 또 그곳에서 모든 죄악을 끝낸다, 만일 여전히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믿는 자들 안에서 역시 그 정결케 함이 단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결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을 끝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 끝이 오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함과 함께 지상 교회에 성도들의 정결케 함이, 동등한 보조를 맞추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침단을 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비록 내가 사람들의 생애 안에서 죄악을 끝마칠 수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람들의 생애 안에서 죄악들이 끝나게 하고, 또 죄에 화해를 이루고, 또 영원한 의를 가져 올 수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소를 정결케 함에 대하여 설교 하지 않으면,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다. 성소가 정결케 될 때까지, 그 큰 날이 올 수 없다. 그대와 나의 생애에서 죄악이 끝날 때까지, 그대와 나의 생애에서 행한 죄들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소가 정결케 될 수 없다; 그런 다음, 오, 그 모든 영혼 안에, 영원한 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의가 한결같이 의의 길에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생애에서 의를 간직하고 소유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가 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의에 순종하고, 의를 행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나며,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실패하여,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의가 생명 밖에 있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 그 때문에, 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하여 있는 자들은, 성전을 정결케 함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들 생애에서 죄악을 끝내고,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 대단한 관념을 가지게 되면, 모든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죄들이 끝장나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줄곧 있었던 모든 죄들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의가 들어오게 된다, 오, 영원한 의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 의가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의가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며, 그 의가 영원히 우리를 주관할 것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상속인으로 보존하여 영원한 대저택들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이 방식만이 누구든지 성전을 참으로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그대의 마음과 정신이 증언한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과 정신이 또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만일 그와 같은, 대단한 헌신과 순종으로, 아주 정결하게 되어, 교회에 속하면, 참으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하여, 이 기별을 전함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이 세대에 체류하고 있는 복음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오, 지금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고, 글자 그대로 교회에 속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을 주고, 교회에게 우리 자신들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성전을 깨끗케 함이, 그 분께서 길고 긴 세월 동안 갈망하고 갈망하신 것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분 앞에 나타 낼 수 있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함을 이루는 것이다.

**A.T. 존스.**

(이 기록은 **A. T. 존스가 1903년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설교한 것을 재판한 것이다.)**